

# 농가 경영이양에 대한 영향요인\*

황정임<sup>a</sup> · 최윤지<sup>b</sup> · 최정신<sup>a</sup>

<sup>a</sup>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sup>b</sup>농촌진흥청(전북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 Factors Affecting Family Farm Succession

Jeong-Im Hwang<sup>a</sup>, Yoon-Ji Choi<sup>b</sup>, Jung-Shin Choi<sup>a</sup>

<sup>a</sup>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DA(166 Nong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nbuk)

<sup>b</sup>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300 Nongsaengmyeong-ro, Wansan-gu, Jeonju-si, Jeonbuk)

### Abstract

Farm success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vents that substantially influence the viability of a farm business not only for a family farm operation, but also for a farm industry as a whol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probability of existence of a successor, using the nationwide survey data. The probability of having a successor increases with the age of operator, the number of sons, the area under cultivation, organic farming, farm expansion plan, main crop and operator's attitude towards farm succession. Also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uccession plans of family farms having a successor and land disposal plans of family farms without a successor. 40% of farms having a successor have only vague succession plans and 34.7% of farms without a successor have a plan to apportion their land among their childre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planning for farm succession and successors' agricultural training. In addition, measures for preventing from land fragmentation are needed for realization of effective usage of agricultural land.

**Key words:** farm succession, family farms, successors

### 1. 서론

전통적으로 농산업은 가족농의 영농승계를 통해 농업 인력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면서 그 명맥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농업인의 승계자 확보 여부에 대한 가장 최근의 조사결과인 2014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전체 농가 가운데 영농승계자를 확보하고 있는 농가의 비율은 약 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2005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서 3.5%까지 떨어졌던 것에 반해, 2011년 이후로는 9% 대를 유지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농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감안하면, 영농승계

자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의 수 역시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다.

영농승계자 보유 농가 수의 감소는 농가 고령화로 이어진다.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농가 경영주는 2000년에 전체 농가의 50.3%, 2010년 61.0%를 차지한 데 이어, 2015년에는 68.3%에 이르고 있다. 반면, 40세 미만 농업인의 비율은 2015년 기준 1.3%에 불과하였다.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젊은 후계 농업인의 유입 확대가 절실해지는 이유이다. 그러나 40세 미만 농업인 가운데 승계 창농자의 비율이 절반에 못 미치는(약 40%) 현실 속에서(마상진, 정은미, & 김정인, 2017), 기존 농가의 경영승계보다는 신규 농업 인력의 유입에 정책적 관심이

주요어: 경영이양, 가족농, 승계자

\*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 PJ01350203)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짐.

\*\* 교신저자(최윤지) 전화: 063-238-0479, e-mail: veritas96@korea.kr

집중되어 있는 양상이다. 신규 인력이 농업을 시작하게 될 때에 부딪히게 되는 장애요인이 승계농에 비해 크다는 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해할 수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승계농을 확보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농가의 경영승계가 농업 경영과 관련된 유무형 자원을 후대에 효과적으로 이양할 수 있는 경로가 됨은 이미 여러 문헌에서 강조한 바 있다. Lobley, Baker, & Whitehead(2010)는 가족 내 세대 간 승계를 통해 유무형 자원이 다음 세대에 전승될 수 있고, 이것이 효과적인 농업 경영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Pesquin, Kimhi, & Kislev (1999)는 가족 내 경영승계의 추가적인 장점을 언급하였는데, 예컨대 전환 비용의 감소, 자녀들이 친숙한 농장 환경에서 영농을 시작하게 됨에 따라 비교우위를 갖게 되는 점, 세금 경감 등이다.

경영이양을 위한 의욕과 자원을 갖춘 농가가 효과적으로 경영이양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면, 이는 보다 건실한 후대 한국 농업의 초석을 마련하는 길이 될 것이다. 경영이양에 관한 여러 문헌은 경영이양이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간의 이행 단계들을 거쳐 완성되는 과정을 강조한다(Lobley, Baker, & Whitehead, 2010; Potter, & Lobley, 1996; Uchiyama, Lobley, Errington, & Yanagimura, 2008). 농가는 발전 단계에서 경영이양에 관련된 여러 이슈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승계 효과', 즉 승계에 대한 기대가 농업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다. 두 번째 '승계자 효과'는 승계자가 점차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효과이다. 승계자는 일정 기간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전략을 비즈니스에 도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은퇴 효과'이다. 은퇴는 농업인으로서의 경력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승계자가 없는 농가라면 영농 규모와 노동 부담을 줄이고, 농지를 처분하는 등 최저 수준의 생산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 만약 승계자가 있는 농가라면,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는 후계 세대와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를 줄이고자 하는 경영주의 입장이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농가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농가 경영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Uchiyama, Lobley, Errington, & Yanagimura (2008)는 농가의 경영승계와 농업 경영은 서로 긴밀한 상호작용 관계에 있으며, 경영승계 과정은 농가의 존속 여부, 더 나아가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경영이양 의사가 있는 농가의 경영이양 계획과 고충을 파악하는 것은 개별 농가뿐만 아니라 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데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다. 강경하(2008)는 승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정착 제약요인을 조사한 결과, 농업 경영의 어려움, 기술, 자금, 인력의 부족, 부모와의 의견 대립, 승계 계획이 모호함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보고했다. 강경하, & 이영석(2008)은 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도 원활한 승계를 위한 능동적인 대책이 미비하고, 부모-자녀 간 소통과 합리적 의사결정이 부재하다는 데에 문제의식을 갖고 가족경영협약을 활용하여 원활한 농장승계를 지원하는 모델을 현장적용을 통해 제안했다. 한편, 전체 농가 가운데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승계자가 없는 농가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 역시 미래 농업 구조를 예상하고 대비하는 데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승계자 유무를 막론하고 농가의 농지 처분에 대한 계획은 중요한 이슈이다. 경영승계는 상속의 문제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방대한 연구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승계 과정에 농지의 상속이 포함된다고 보고 승계자가 있는 농가의 상속 계획에 대해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은 균분상속을 규정하고 있는 법의 영향과 핵가족화의 진전, 재산으로서 농지를 인식하는 등으로 인한 농지 세분화, 농지 이용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송재일, 2011; 이성호, & 김정호, 1995; 채광석, & 박석두, 2012). 만약 농가가 승계자를 보유하지 못했다면, 농지는 전체 단위로, 혹은 분할되어 새로운 주인에게 양도될 것이다. Lobley, Baker, & Whitehead(2010)은 이때 발생하게 되는 시차로 인해 농장 자원의 효과적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농가가 승계자를 보유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개별 경영체 및 사회적 차원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일본에서는 '제3자 경영승계사업'<sup>1)</sup>을 추진하고 있다(황정임, 최윤지, & 윤민혜, 2014). 본 연구에서는 승계자가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도 농지 처분 계획과 함께 제3자 경영이양 의사를 조망해보고자 한다.

농가의 경영이양 관련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사례가 많지 않다. 국외에서는 사회학 또는 역사학적 접근 방식으로 경영이양 형태, 특징, 과정 등을 다룬 연구에서부터 경제학적 접근으로 경영이양 확률, 시기 결정요인 등에 대한 연구들이 발견되지만, 국내에서는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이다. 강혜정(2008)은 2005 농업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영농승계자 보유 농가의 특징을 분석했

1) 이는 승계자 확보가 어려운 대규모 농가와 신규 농업인을 연결해 농장을 인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며, 윤순덕, 김경미, & 조영숙(2008)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은퇴와 경영이양 의사에 대해 조사분석을 실시했다. 이 성호, & 김정호(1995)는 농가 상속의 한 요소로서 경영승계를 정의하고, 경영승계 방법, 과정 등을 고찰했다. 경영이양 관련 제도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서 황정임, 최윤지, & 윤만혜(2014)는 국내외 경영이양 관련 제도를 비교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승계자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의 경영이양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승계자 확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승계자가 있는 농가의 경영이양 계획, 승계자가 없는 농가의 향후 농지 처분 계획, 제3자 경영이양 의사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추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회귀분석 결과에서 담아내지 못한 농가의 희망 이행(transition)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아울러 이상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경영이양 관련 과제와 대응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 2.1. 농가 경영이양에 대한 영향요인

경영이양은 사업체 자산의 경영권을 후대에 물려주는, 장기간에 걸쳐 완성되는 과정이다(Lobley, Baker, & Whitehead, 2010). 농업 경영이양에 소유권의 상속을 포함시켜 정의하는가 하면(Mishra, & El-Osta, 2008), 상속을 농업경영의 승계와 재산의 승계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이성호, & 김정호, 1995). 그러나 경영이양의 계획이 가족농의 생애주기 뿐만 아니라 농업 구조 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불가피한 사안이라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Mishra, & El-Osta, 2008; Glauben, Petrick, Tietje, & Weiss, 2009).

부모-자녀 간 경영이양의 동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두 가지 모형, 즉 이타주의 모형(altruism model)과 상호교환 모형(exchange model)이 대표적이다(Mishra, El-Osta, & Shaik, 2010; Stiglbauer, & Weiss, 2000). 이타주의 모형에서 부모는 자녀들의 안위와 행복으로부터 얻는 효용 때문에 경영이양을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반면, 상호교환 모형에서는 부모들이 경영을 이양하면 자녀들이 그에 대한 대가로 보살핌과 애정, 은퇴 후의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을 경영이양의 동기로 본다. 그러나 이외에도, 가족 전통, 사회문화적 가치와 같은 비재정적 동기가 경영이양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Inwood, Clark, & Bean, 2013; Lobley, Baker, & Whitehead, 2010).

국외에서는 경영승계가 농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으로 인해 사회학적 또는 역사학적 접근으로 오랫동안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Carroll, & Salamon, 1988; Coughenour, & Kowalski, 1977; Friedberger, 1983; Taylor, Norris, & Howard, 1998). 이에 더해 1990년대부터는 여러 국가에서 세대 간 경영승계에 대한 영향 요인을 구명하는 다수의 실증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은 크게 농가 경영주의 특성, 승계자의 특성, 농가 특성, 그리고 경영승계와 관련된 특정 이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Kimhi, & Nachlieli (2001)는 이스라엘 가족농에서 가족 내 세대 간 경영이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가족 특성과 농가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때 경영승계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적용했는데, 첫 번째는 공식적으로 승계자라고 인정한 자녀가 있느냐의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성인 자녀의 존재 유무이다. 농가가 승계자를 보유하고 있을 확률은 경영주의 연령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첫 번째 개념을 적용했을 때 소유 농지 면적과 승계자 보유 확률이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산으로서의 농지 가치가 클수록 부모가 경영이양 결정을 유보하게 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해석했다.

Stiglbauer, & Weiss (2000)는 실제 실현된 경영승계에 대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분석 결과, 농장 및 가족의 규모, 영농 다각화 정도, 경영주의 교육 수준이 농가 경영승계와 정(+)의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외 일자리가 있는 농업인일수록 농업을 중단할 확률이 높았는데, 이에 대해 농외 활동이 농가가 농업을 그만두는 첫 번째 단계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ishra, El-Osta, & Shaik (2010)은 내생변수로서 재산과 농장 규모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농가 경영이양 결정의 영향 요인을 구명했다. 경영주 연령, 경영주와 배우자의 농외일자리 종사, 농가의 기대 가치 등이 승계자 보유 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가 경영주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승계자를 가질 확률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Mishra, & El-Osta (2008)는 정부의 농업 정책이 경영이양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실증 분석 결과, 경영이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 농가 재산, 경영주의 연령과 교육수준 변인의 효과를 구명했다.

일부 연구는 경영이양 가능성뿐만 아니라 경영이양 시기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Glauben, Tietje, & Weiss (2004)는 경영이양

결정, 승계자 선정, 그리고 경영이양 시기 등 경영이양의 세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농장 규모, 가족의 수, 그리고 경영주의 경험과 연령이 농가의 경영이양 과정에 유의미한 변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했다.

Glauben, Petrick, Tietje, & Weiss (2009)는 경영이양 확률과 경영이양 시기 혹은 폐업시기의 영향요인을 조명했다. 경영주 연령이 많을수록 승계자 보유 확률이 높은 반면, 부모-자녀 간 연령차와 딸의 수 변인은 경영이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모가 크고 이윤이 높은 농가, 즉, 낙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가족 내 승계 확률이 높았다. 한편, 연령, 건강, 소득세법, 연금 규정 등에 대한 경영주의 주관적 인식은 경영이양 시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로서 강혜정(2008)은 2005 농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영농승계자 보유에 대한 영향 요인을 구명했다. 분석 결과, 경영주 연령, (경영주 연령)<sup>2</sup>, 경영주 교육수준, 가구원 수, 전업농 여부, 농지소유 비중, 영농형태, 지역터미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광석, & 박석두(2012)의 연구에서는 농산물 판매금액이 높을수록, 전업보다 겸업농가일수록, 직거래, 농가식당 등 관련 사업이 있는 농가일수록 승계자를 확보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농지소유면적, 경영면적, 나이, 농업경력 모두 승계자 확보와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작목별로 논벼 농가 대비 특용, 채소, 전작, 축산 농가에서 모두 후계자 확보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3. 연구방법

#### 3.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2013~2014년 농가 경영주를 대상으로 경영이양 계획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사의 대상은 논벼, 식량작물, 과수, 채소, 화훼, 특·약용작물, 축산 중 한 작목이 주 작목인 45세 이상 농업 경영주로 규정하였다. '45세 이상' 기준은 자녀의 연령이 성인이 되어 경영주가 경영이양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경영이양 관련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이다 (Calus, Huylenbroeck, & Lierde, 2008; Glauben, Petrick, Tietje, & Weiss, 2009; Kerbler, 2012; Mishra & El-Osta, 2008). 표본추출 시에는 전국 읍면별 해당 작목의 농가수를 바탕으로 확률비례추출(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 pps sampling) 방법

을 적용하여, 해당 작목의 농가수가 많은 읍면과 적은 읍면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5개 읍면을 먼저 추출한 후, 각 읍면에서 30농가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30농가의 선정 시에는 시군농업기술센터나 읍면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해당 작목 재배 농가가 많은 마을 또는 작목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대상자를 찾아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7개 작목별 150농가 씩 총 1,050농가가 조사되도록 설계하였으나, 조사 대상자가 응답을 거부하거나, 무응답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설문 등을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유효 설문은 1,005부이다.

#### 3.2. 조사 내용 및 분석 방법

조사 내용은 승계자 보유 여부, 농가 특성, 농업 경영 특성, 농업에 대한 주관적 인식 특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승계자가 있는 경우, 승계자 특성과 경영이양 계획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승계자가 없는 경우, 영농 중단 이후 농지 처분 계획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승계자 보유의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모형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로 사용한 승계자 보유 여부는 '확정된 승계자가 있다'와 '확정된 승계자는 없지만 후보가 있다'를 묶어 승계자가 있는 농가(1)로, 둘 다 확보하지 못한 농가를 승계자가 없는 농가(0)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독립변인 중 농가 특성 변인에서, Glauben, Petrick, Tietje, & Weiss(2009), Kimhi, & Nachlieli(2001), Mishra, & El-osta(2008), Mishra, El-osta, & Shaik(2010), Stiglbauer, & Weiss(2000)는 공통적으로 교육 수준과 농외 일자리 종사 여부를 승계자 보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 교육 수준은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이하', 그리고 '대학 이상'으로 구분하고, 마지막 '대학 이상' 집단을 참조변인으로 설정했다.

승계자 보유에 대한 농외 일자리의 효과는 다소 상반되게 보고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경영주의 농외 일자리 종사 여부와 배우자의 농외 일자리 종사 여부를 별도의 변인으로 모형에 투입하여 각각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농가의 소득 구성을 나타내는 변인으로서 전업, 1종 겸업, 2종 겸업을 터미 변인으로 투입했으며, 비농업소득이 농업소득보다 큼을 나타내는 2종 겸업을 참조변인으로 설정했다. 주 작목 변인은 농가 생산물의 총 판매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작목을 가리킨다. 주 작목을 논벼, 식량작물, 채소, 과수, 화훼, 특·약용작물, 그리고 축산으로 구분했으며, '논벼'를 참조변인으로 사용했다. 한편, 영농의 다각화 혹은 전문화 정도를 측정하는 변인으로서 '주 작목의

(표 1) 변수 정의

구분	변수명	변수 설명	
종속 변인	영농 승계자 유무	있음=1, 없음=0	
독립 변인	농가 특성	경영주 연령	경영주 연령 (세)
		경영주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이하, 대학 이상(참조집단)
		아들 수	아들 수 (명)
		딸 수	딸 수 (명)
	농업 경영 특성	농외일자리 종사 여부	경영주의 농외일자리 종사=1, 해당없음=0(참조집단) 배우자의 농외일자리 종사=1, 해당없음=0(참조집단)
		전·겸업 여부	전업, 1종 겸업, 2종 겸업(참조집단)
		친환경농업 여부	친환경농업=1, 해당없음=0(참조집단)
		주 작목 비중	판매금액이 가장 큰 작목 비중(%)
		영농 확대 계획 유무	향후 5년 후 확대 계획 있음, 현상 유지 계획, 축소 또는 중단할 계획(참조집단)
		주 작목	논벼(참조집단), 식량작물,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 축산
		주관적 인식 특성 (5점 척도)	농업 지속 의향(가능한 한 농업을 계속하고 싶다)
	영농승계 중요성 인식(가족 내 영농승계는 중요하다)		
	긍정적 농업 전망(농업은 전망있는 직업이다)		
	정부지원 확대 전망(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될 것이다)		

비중'을 사용했다. 선행 연구에서는 베리지수(Stiglbauer, & Weiss, 2000)나 허쉬만-허핀달지수(Glauben, Tietje, & Weiss(2004)를 사용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주 작목의 비중을 대체변인으로 사용했다. 주 작목의 비중이 영농의 다각화 혹은 전문화 정도에 대해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농업이나 경영이양에 대한 경영주의 주관적 인식이 승계자 보유 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영농이나 경영이양에 대한 경영주의 인식이 농업 경영이나 이양 결정, 그리고 자녀의 선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승계자 보유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종속변수가 두 개의 값만을 가질 경우에 적용하는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모형(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사용했다. 또한, 승계자를 확보한 경우의 경영이양 계획, 혹은 승계자가 없을 경우의 향후 농지 처분 계획 등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을 통해 결과를 도출했다.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로는 IBM SPSS Statistics 20을 이용했다.

## 4. 연구결과

### 4.1. 농가 경영이양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농가 경영이양 영향요인 분석에 투입된 변수들의 기초통계값은 <표 2>와 같다. 설문에 응답한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59.73세였으며, '대학 이상'의 학력은 약 10% 정도에 불과하였다. 농업 경영 특성으로, 농외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은 경영주, 배우자 각각 약 19%, 20% 정도로 나타났으며, 농업 소득만 있는 농가(전업)가 72%였다. 경작면적은 평균 2.94ha로, 2015년 농림어업조사 기준 호당 평균 면적(1.54ha)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다.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비율은 약 31%였으며, 응답 농가의 약 15%만이 향후 5년 후 영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논벼, 식량작물,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 축산 등 각 작목별 분포는 약 11~17% 수준이었으며, 주 작목이 농가의 총 농산물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76.7% 정도로 나타났다. 경영주의 주관적 인식 문항 가운데 '가능한 한 농업을 지속하고 싶다(농업 지속 의향)'에 동의하는 수준이 가장 높게(3.61점/5점 척도) 나타났으며,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될 것이다(정부 지원 확대 전망)'에는 3.24점 정도의 동의를 나타냈다.

농가 경영이양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2LL(-2 log likelihood) 변화량이 유의한지에 대한  $\chi^2$ 검정을 실시한 결과, 추정된 모형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도 검정법으로서 Hosmer-Lemeshow 검정을 적용한 결과 추정된 모형의 유의 확률 값이 유의수준보다 크게 나타나, 추정된 모형이 잘 적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모형의 품질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지표로서 분류 정확도는 78.6%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농가 특성 중에서 경영주 연령, 아들의 수와 딸의 수는 경영이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경영주 연령이

(표 2) 변수들의 기초통계값

구분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농가 특성	경영주 연령		59.73	8.49	45	89
	경영주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44	0.50	0	1
		고등학교 이하	0.46	0.50	0	1
	아들 수		1.42	0.84	0	6
	딸 수		1.23	1.08	0	6
농업 경영 특성	농외일자리 종사 여부	경영주	0.19	0.39	0	1
		배우자	0.20	0.40	0	1
	전·겸업 여부	전업	0.72	0.45	0	1
		1종 겸업	0.18	0.38	0	1
	경작면적 (ha)		2.94	5.66	0.10	99.99
	친환경농업 여부		0.31	0.46	0	1
	주 작목 비중 (%)		76.67	20.66	30	100
	영농 계획	영농 확대 계획	0.15	0.35	0	1
		현상 유지 계획	0.54	0.50	0	1
	주 작목	식량작물	0.11	0.31	0	1
		채소	0.15	0.35	0	1
		과수	0.15	0.36	0	1
		화훼	0.14	0.35	0	1
		특용/약용	0.15	0.36	0	1
		축산	0.17	0.38	0	1
주관적 인식 특성	농업 지속 의향		3.61	1.09	1	5
	영농승계 중요성 인식		2.79	1.23	1	5
	긍정적 농업 전망		2.68	1.19	1	5
	정부 지원 확대 전망		3.24	1.28	1	5

높을수록 승계자를 보유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Glauben, Petrick, Tietje, & Weiss(2009), Mishra, & El-osta (2008), Mishra, El-osta, & Shaik(201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Stiglbauer, & Weiss(2000), Kimhi, & Nachlieli(2001), Glauben, Petrick, Tietje, and Weiss(2009), Glauben, Tietje, & Weiss (2004), 강혜정(2008)에서 구명한 연령과 경영이양 확률 간 비선형 관계는 발견되지 않아 최종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아들의 수와 딸의 수는 승계자 유무에 상반되는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의 수가 많을수록 승계자 확보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딸의 수가 많을수록 승계자 확보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승계자로서 아들이 선호되는 경향(Glauben, Petrick, Tietje, & Weiss, 2009; Kimhi, & Nachlieli, 2001; 이성호, & 김정호, 1995)은 최근까지도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0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영농승계자가 있는 109,528농가 가운데 승계자가 남성인 비율이 97.3%인 반면, 승계자가 여성인 비율이 2.7%에 불과하였다.

농업 경영 특성 가운데 농외 일자리 종사 여부, 전·겸업 여부는

선행연구에서와 달리 승계자 보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작 면적이 넓을수록,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일수록 승계자를 보유하고 있는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일수록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대해 보다 열린 태도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더 높은 이윤을 창출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강혜정(2008)은 친환경농업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승계자를 유인할 확률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향후 5년 후 영농 계획에 있어, 영농 규모를 줄이거나 중단할 예정인 집단에 비해 영농을 확대하거나 유지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경우 승계자 보유 확률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 경영주가 영농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면, 농장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이양 계획을 가질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Calus, Huylenbroeck, & Lierde, 2008; Mishra, & El-Osta, 2008). 그러나 반대로 이른바 ‘승계 효과(succession effect)’로서 승계에 대한 기대로 인해 농장 확대가 계획되었을 수도 있다(Lobley, Baker, & Whitehead, 2010). 이처럼 농장 확대 계획과 승계자 보유 간의 인과관계는 선행연구

〈표 3〉 승계자 보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변수명		추정치	
			β	표준오차
농가 특성	경영주 연령		.092 ***	.014
	경영주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47	.321
		고등학교 이하	.281	.298
	아들 수		.214 *	.116
	딸 수		-.199 **	.086
농업 경영 특성	농외일자리 종사 여부	경영주	-.063	.255
		배우자	.095	.257
	전·겸업 여부	전업	.132	.340
		1종 겸업	.340	.355
	경작 면적		.027 **	.014
	친환경농업 여부		.543 ***	.190
	주 작목 비중		-.005	.005
	영농 계획	영농 확대 계획	.620 **	.292
		현상 유지 계획	.390 *	.207
	주 작목	식량작물	.502	.407
		채소	.406	.389
		과수	1.474 ***	.351
		화훼	1.178 ***	.374
		특용/약용	.900 **	.358
축산		1.719 ***	.351	
주관적 인식 특성	영농 지속 의향		-.072	.104
	영농승계 중요성 인식		.841 ***	.092
	긍정적 농업 전망		.079	.082
	정부 지원 확대 전망		.060	.072
상수항			-8.815 ***	1.033

관측치: 931  
 Likelihood ratio test:  $\chi^2=302.572^{***}$  (Null model -2LL:1,165,840, Alternative model -2LL:863,268, df=24)  
 Goodness-of-Fit:  $\chi^2=3.445(p>0.1)$   
 Pseudo R-Square: Cox & Snell  $R^2=0.277$ , Nagelkerke  $R^2=0.389$   
 \* p(0.1), \*\* p(0.05), \*\*\* p(0.01)

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Stiglbauer, & Weiss, 2000; Kimhi, & Nachlieli, 2001; Glauben, Petrick, Tietje, and Weiss, 2009). 주 작목 변인 중에서는 논벼 대비, 과수, 화훼, 특용/약용, 축산이 주 작목인 경우, 승계자를 보유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량작물, 채소 역시 논벼 대비 승계자 보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는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상대적으로 고소득,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에서 이양 확률이 더욱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경영주의 태도와 관련된 네 개의 변인 중에서는 ‘영농승계 중요성 인식’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농승계에 대해 경영주가 부여하는 가치가 자녀 세대로까지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영주의 ‘영농 지속 의향’은 승계자 보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Mishra, & El-Osta(2008)에서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가 승계자 보유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 4.2. 승계자 유무에 따른 농가의 계획

### 4.2.1. 승계자 확보/미확보의 요인, 농지 처분 계획

〈표 4〉는 승계자가 있는 농가에 대해 경영이양하고자 하는 이유를, 승계자가 없는 농가에 대해 승계자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이다. 승계자가 있는 농가의 경우, ‘가업을 후대

(표 4) 승계자 유/무 각각의 요인(응답 비율이 높은 순으로 정렬)

승계자가 있는 농가 (n=325)			승계자가 없는 농가 (n=680)		
구 분		빈도 (%)	구 분		빈도 (%)
경영 이양 이유	가업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84 (25.8)	승계자 부재 이유	자녀가 있지만 승계 의사가 없다	405 (59.6)
	축적한 영농자산과 노하우를 물려주기 위해	71 (21.8)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물려줄 만한 것이 못 된다	112 (16.5)
	영농승계자가 원하기 때문에	65 (20.0)		농업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85 (12.5)
	다른 직업보다 영농이 낫기 때문에	56 (17.2)		적합한 대상자를 찾지 못했다	39 (5.7)
	노후를 여유있게 보내기 위해	38 (11.7)		자녀가 없다	18 (2.6)
	기타	11 (3.4)		기타	21 (3.1)

(표 5) 승계자 유/무별 농지 처분 계획

승계자가 있는 농가 (n=325)		승계자가 없는 농가 (n=680)	
구 분	빈도 (%)	구 분	빈도 (%)
영농승계자에게 전부 상속	118 (36.3)	장자에게 상속	38 (5.6)
영농승계자 일부, 다른 자녀 분배	174 (53.5)	자녀들에게 분배 상속	236 (34.7)
영농승계자 일부, 다른 사람에게 매매	25 (7.7)	다른 사람에게 임대	83 (12.2)
기타	8 (2.5)	농사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	75 (11.0)
		농사 여부와 상관없이 매매	89 (13.1)
		농지은행사업 이용	50 (7.4)
		농지연금 이용	46 (6.8)
		기타	63 (9.3)

(표 6) 승계자가 없는 농가의 농지 처분 계획(소유면적별)

단위: 명 (%)

구 분	영농 중단시 농지 처분 계획								전체	$\chi^2$ (p)
	장자 상속	분배 상속	임대	매매	농지은행 이용	농지연금 이용	기타			
소유 면적	1ha 미만	19 (5.1)	118 (31.6)	51 (13.7)	85 (22.8)	24 (6.4)	27 (7.2)	49 (13.1)	373 (100.0)	28,440 (0.005 <sup>*)</sup>
	1~2ha 미만	11 (6.9)	52 (32.5)	18 (11.3)	43 (26.9)	13 (8.1)	15 (9.4)	8 (5.0)	160 (100.0)	
	2ha 이상	8 (5.4)	66 (44.9)	14 (9.5)	36 (24.5)	13 (8.8)	4 (2.7)	6 (4.1)	147 (100.0)	

\*\*\* p(0.01, \*\* p(0.05, \* p(0.1

에 물려주기 위해'(25.8%), '축적한 영농자산과 노하우를 물려주기 위해'(21.8%), '승계자가 원하기 때문에'(20.0%) 경영이양하고자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반면, 승계자가 없는 농가의 경우, '자녀가 있지만 승계 의사가 없다'(59.6%)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승계자가 있는 농가의 경우, 경영주의 의지를 비중있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승계자가 없는 농가의 경우, 승계자의 거부 의사를 주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승계자가 있는 농가의 경우, 농지 상속에 대해서 '영농승계자에게 일부 상속하고, 나머지는 다른 자녀들에게 나누어 상속하겠다'라는 응답이 53.5%로 가장 많았으며, '영농승계자에게 전부 상속하겠다'라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도 비농업인의 농지 상속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승계자가 없는 농가의 경우에도 '자녀들에게 분배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34.7%로 가장 높았다. 또한 '농사 여부와 상관없이 매매하겠다'는 응답이 다음 순위(13.1%)를 나타내, 농지가 영농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승계자가 없는 농가의 농지 처분 계획을 소유면적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분배 상속', '매매'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유면적이 1ha 미만인 경우에도 자녀들에게 분배 상속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소유 면적이 넓을수록 '분배 상속' 비율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



4.2.2. 승계자가 있는 농가의 경영이양 계획

승계자가 있는 농가의 영농승계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표 7), 승계자가 ‘자녀’인 비율이 93.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 중에서도 첫째 자녀가 승계자인 비율이 67.3%로 가장 높았다. 승계자는 남성 비율이 96.0%로 대부분이었으며, 연령은 30~40세 미만이 44.0%로 가장 높은 가운데 평균 연령은 34.8세로 분석되었다. 승계자가 동거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59.1%로 동거하고 있는 비율(40.9%)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승계자의 직업은 농업 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47.1%로 가장 높았다. 승계자가 영농에 농사일을 돕는 정도로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46.2%였으며,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20.6%로 나타났다. 승계자의 학력이 고졸 이상인 응답자 가운데, 농업을 전공(농업계 고등학교, 농업 관련 전문대,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한 비율은 19.4%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전체 승계자의 18.8%는 농업을 전공하지 않고, 농업 외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현재 영농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승계자의 특성을 종합했을 때, 함께 사는 경우보다는 함께 살지 않는 경우가 더욱 많으며, 비농업전공자로서 현재 농업 외 직종에 종사하면서 여력이 있을 때에 농사일을 돕는 정도로 영농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개별 승계자 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영농승계를 위해 농업기술을 숙련할 수 있는 조건에 있지 않은 승계자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승계자가 있는 농가의 경영이양 계획을 분석하였다(표 8). 현재 경영이양 단계로는 아직까지 ‘막연한 구상 단계’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은 가운데, 경영주 및 승계자 연령별로 분석했을 때에도 연령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막연한 구상 단계’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75세 이상 집단에서 ‘경영이양 진행 단계’라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 크기가 작아 차이가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또한 승계자 연령에 있어서도, 승계자 연령과 무관하게 ‘막연한 구상 단계’에 있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30~50세 미만 집단에서는 ‘경영이양 진행 단계’에 있다는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승계자가 동거하고 있을 경우 비동거에 비해 ‘막연한 구상 단계’의 비율이 낮고, ‘경영이양 진행 단계’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각각의 응답 비율이 각각 30.1%, 28.6%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희망 경영이양 과정으로는 ‘생존시 단계적으로 경영권과 소유권을 이양하겠다’는 응답이 4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밖에도 ‘생존시 경영권을 이양하고 사망후에 소유권을 이양하겠다’는 응답이 14.2%로 나타났으며, ‘모르겠다’는 응답도 17.2%를 차지했다. 경영이양이 완료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다’는 응답이 55.1%로 과반수를 나타냈다. 경영이양 완료 시기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 75~80세 미만이 13.2%로, 평균 72.2세 정도에 경영이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승계자를 보유한 농가의 경영주 평균 연령이 62.5세임을 감안하면, 경영이양 완료까지 약 9.7년을 앞두고 있는 셈이 된다. 이미 완료했다는 응답은 2.5%였다.

경영이양 계획 추진 시 애로사항으로는 ‘승계자 기술 습득’을 선택한 비율이 36.3%로 가장 많았다. 경영이양 애로사항을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단계에서 ‘승계자의 농업기술, 경영기술

(표 7) 영농승계자 특성(n=325)

구 분		빈도 (%)	구 분		빈도 (%)
관계	자녀	303 (93.2)	동거 여부	예	133 (40.9)
	자녀외 가족	14 (4.3)		아니오	192 (59.1)
	가족외 지인	8 (2.5)		직업	농업 관련 직종
성별	남성	312 (96.0)	농업 외 직종		153 (47.1)
	여성	13 (4.0)	학생		44 (13.5)
연령	20세 미만	14 (4.3)	무직	23 (7.1)	
	20~30세 미만	69 (21.2)	영농 참여 정도	전혀 참여하지 않음	67 (20.6)
	30~40세 미만	143 (44.0)		농사일을 돕고 있음	150 (46.2)
	40~50세 미만	77 (23.7)		경영에 부분적으로 참여	60 (18.5)
	50세 이상	22 (6.8)		경영을 주도적으로 담당	46 (14.2)
기타	2 (0.6)	기타		2 (0.6)	
학력	초졸 이하	2 (0.6)	농업 전공 (고졸 이상)	예	61 (19.4)
	중졸 이하	7 (2.2)		아니오	255 (80.7)
	고졸 이하	60 (18.5)			
	대학 이상	256 (78.7)			

〈표 8〉 경영주 및 승계자 연령별, 승계자 동거여부별 경영이양 단계

단위: 명 (%)

구 분	현재 경영이양 단계					전체	
	막연한 구상 단계	승계자 확정 단계	구체적 계획 수립 단계	경영이양 진행 단계	경영이양 완료 단계		
계	130 (40.0)	62 (19.1)	52 (16.0)	73 (22.4)	8 (2.5)	325 (100.0)	
경영주 연령	45~55세 미만	36 (56.2)	12 (18.8)	8 (12.5)	8 (12.5)	0 (0.0)	64 (100.0)
	55~65세 미만	53 (39.3)	24 (17.8)	29 (21.5)	28 (20.7)	1 (0.7)	135 (100.0)
	65~75세 미만	30 (34.9)	18 (20.9)	8 (9.3)	25 (29.1)	5 (5.8)	86 (100.0)
	75세 이상	11 (27.5)	8 (20.0)	7 (17.5)	12 (30.0)	2 (5.0)	40 (100.0)
승계자 연령	20세 미만	10 (71.4)	2 (14.3)	1 (7.1)	1 (7.1)	0 (0.0)	14 (100.0)
	20~30세 미만	40 (58.0)	7 (10.1)	14 (20.3)	8 (11.6)	0 (0.0)	69 (100.0)
	30~40세 미만	45 (31.5)	30 (21.0)	29 (20.3)	36 (25.2)	3 (2.1)	143 (100.0)
	40~50세 미만	26 (33.8)	18 (23.4)	6 (7.8)	22 (28.6)	5 (6.5)	77 (100.0)
	50세 이상	9 (40.9)	5 (22.7)	2 (9.1)	6 (27.3)	0 (0.0)	22 (100.0)
승계자 동거여부	동거	40 (30.1)	27 (20.3)	23 (17.3)	38 (28.6)	5 (3.8)	133 (100.0)
	비동거	90 (46.9)	35 (18.2)	29 (15.1)	35 (18.2)	3 (1.6)	192 (100.0)

〈표 9〉 희망 경영이양 과정 및 완료 시기(n=325)

구 분	구 분		구 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희망 경영이양 과정	생존시 경영권, 사망후 소유권 이양	46 (14.2)	경영이양 완료 시기	00세 정도로 예상	65세 미만	7 (2.2)
	생존시 소유권, 사망후 경영권 이양	20 (6.2)			65~70세 미만	24 (7.4)
	생존시 단계적으로 경영권과 소유권 이양	146 (44.9)			70~75세 미만	40 (12.3)
	생존시 일시에 경영권과 소유권 이양	29 (8.9)			75~80세 미만	43 (13.2)
	사망후 경영권과 소유권 이양	28 (8.6)			80세 이상	24 (7.4)
	모르겠다	56 (17.2)		예측할 수 없음	179 (55.1)	
				이미 완료	8 (2.5)	

〈표 10〉 현재 경영이양 단계별, 승계자 동거여부별 애로사항

단위: 명 (%)

구 분	경영이양 애로사항						전체	
	승계자 확정	단계적 경영이양 계획 수립	세대간 의사소통	농업 경영 의견차이 조정	승계자 기술 습득	기타		
계	38 (11.7)	64 (19.7)	37 (11.4)	46 (14.2)	118 (36.3)	22 (6.8)	325 (100.0)	
현재 경영이양 단계	막연한 구상 단계	21 (16.2)	19 (14.6)	16 (12.3)	19 (14.6)	44 (33.8)	11 (8.5)	130 (100.0)
	승계자 확정 단계	12 (19.4)	16 (25.8)	5 (8.1)	6 (9.7)	23 (37.1)	0 (0.0)	62 (100.0)
	구체적 계획 수립 단계	2 (3.8)	12 (23.1)	3 (5.8)	9 (17.3)	21 (40.4)	5 (9.6)	52 (100.0)
	경영이양 진행 단계	3 (4.1)	16 (21.9)	13 (17.8)	10 (13.7)	26 (35.6)	5 (6.8)	73 (100.0)
	경영이양 완료 단계	0 (0.0)	1 (12.5)	0 (0.0)	2 (25.0)	4 (50.0)	1 (12.5)	8 (100.0)
승계자 동거여부	동거	10 (7.5)	30 (22.6)	13 (9.8)	22 (16.5)	51 (38.3)	7 (5.3)	133 (100.0)
	비동거	28 (14.6)	34 (17.7)	24 (12.5)	24 (12.5)	67 (34.9)	15 (7.8)	192 (100.0)

(표 11) 소유면적 및 연간판매금액별 제3자 경영이양 의사

단위: 명 (%)

구 분		제3자 경영이양 의사			전체	$\chi^2$ (p)
		있다	잘 모르겠다	없다		
계		170 (25.0)	322 (47.4)	188 (27.6)	680 (100.0)	
소유 면적	1ha 미만	73 (19.6)	185 (49.6)	115 (30.8)	373 (100.0)	16,143 (0.003 <sup>***</sup> )
	1~2ha 미만	50 (31.3)	66 (41.3)	44 (27.5)	160 (100.0)	
	2ha 이상	47 (32.0)	71 (48.3)	29 (19.7)	147 (100.0)	
연간 판매 금액	1천만원 미만	18 (15.3)	54 (45.8)	46 (39.0)	118 (100.0)	21,622 (0.006 <sup>***</sup> )
	1천~3천만원 미만	38 (20.4)	99 (53.2)	49 (26.3)	186 (100.0)	
	3천~5천만원 미만	41 (30.4)	63 (46.7)	31 (23.0)	135 (100.0)	
	5천~1억원 미만	40 (33.3)	47 (39.2)	33 (27.5)	120 (100.0)	
	1억원 이상	33 (27.3)	59 (48.8)	29 (24.0)	121 (100.0)	

\*\*\* p(0.01, \*\* p(0.05, \* p(0.1

습득'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막연한 구상 단계에서는 '승계자 확장'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경영이양 계획 단계 및 경영이양 진행 단계에서는 '단계적 경영이양 계획 수립', 경영이양을 완료한 단계에서는 '농업경영에 대한 세대 간 의견 차이 조정'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세대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한 비율은 경영이양 진행 단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경영이양 단계별로 보았을 때 각 집단의 크기가 작아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승계자 동거 여부에 따라 경영이양 애로사항을 분석했을 때에도 승계자의 기술 습득은 공통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영역으로 나타났다. 다만 승계자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계적 경영이양 계획 수립'과 '농업경영 의견 차이 조정'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4.2.3. 승계자가 없는 농가의 제3자 경영이양 의사

<표 11>은 승계자가 없는 농가에 대해 제3자 경영이양 의사를 질문한 결과이다. 자녀나 가족 이외 제3자에게 영농기술과 함께 영농기반을 이양할 의사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7.4%인 가운데, '있다'는 응답도 25.0%를 나타냈다. 소유면적별로는 면적이 넓을수록 제3자 경영이양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판매금액별로 살펴 보았을 때, 모든 집단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5천~1억원 미만'인 집단에서 의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농가 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승계자를 확보하고 있

는 농가가 10%에 못 미치는 현실을 배경으로 승계자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함과 더불어, 승계자가 있는 농가의 경영이양 계획과, 승계자가 없는 농가의 향후 계획 등을 조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를 통해 향후 승계자 확보 및 농업 구조 변화 대응 등과 관련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승계자를 보유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 결과로서, 경영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농가의 미래에 대한 윤곽을 구체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조사 응답자 중 승계자를 보유한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2.5세였으며, 약 9.7년 이후인 72.2세 정도에 경영이양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조사 시점 기준 평균 34.8세인 승계자가 대략 40대 중반에 농가의 경영주가 됨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청년 농업인의 기준(40세 미만)을 넘긴 나이는 아니지만, 최근 5년간의 영농 분야 신규 진입 평균연령이 52.6세임을 감안하면 그렇게 늦은 출발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마상진, 정은미, & 김경인, 2017). 다만,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에 따라 고령 농가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경영승계는 경영주의 은퇴와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에 경영주의 은퇴 후 생활 안정과 승계자의 순조로운 영농 개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에 대한 해법은 경영이양 또는 승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경작면적, 친환경농업여부, 주 작목은 승계자 보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농가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인들로서, 역시 예상되는 결과와 일치했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는 농가 승계자의 지속적 확보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셋째, 경영주의 주관적 인식 변인으로서 영농승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승계자 보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내용을 견주어 살펴보면, 승계자를 확보한 농가의 경우 '가업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혹은 '축적한 영농 자산과 경영 노하우를 물려주기 위해' 농업을 이양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승계자가 없는 농가의 경우 '자녀가 있지만 승계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과반수이기는 했으나, '농업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혹은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물려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응답들이 비교적 높았다. 이는 경영주의 인식의 중요성을 부연하는 결과로서, 경영주가 오랜 세월 공들여 축적한 영농 자산과 노하우에 가치를 부여하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 차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찍이 Laband, & Lentz (1983)는 농장에 특화된 지식의 가치가 여느 다른 산업 영역에서 기업에 특화된 지식이 지니는 가치보다 농업 분야에서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역설한 바 있다. 농업 일반에 대한 지식은 물론 농가가 경작하고 있는 개별 농지, 미시 기후 등의 특이성 등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가 전수되는 통로로서 영농승계가 지니는 중요한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존중이 필요하다.

넷째, 승계자를 확보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승계자는 동거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과반수였으며,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비율 및 영농에 농사일을 돕는 정도로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각각 반수 가까이에 이르는 등 현재 농업기술을 숙련할 수 있는 조건에 있지 않은 승계자의 비율이 높아 보였다. 농업을 전공하지 않고, 농업 외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현재 영농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승계자 비율이 18.8%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현재 경영이양 단계별 농가의 애로사항을 파악했을 때, 모든 단계에서 '승계자의 농업 기술, 경영 기술 습득'을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승계자가 직접 경로 혹은 후회 경로 등 어떤 경로를 택하여 영농을 시작하든 간에,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영농 기술을 체득하는 과정(learning by doing)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계자가 영농에 필요한 기술을 승계시기에 다채 단기간에 습득하고자 한다면, 혹은 갑작스러운 경영주의 은퇴나 부재 등으로 인해 모든 책임을 일순간에 승계하게 된다면 영농을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시키기까지 오랜 시행착오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영농기술은 평생에 걸쳐 익혀야 하는 것이겠으나, 승계자가 경영주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승계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체계적인 준비를 갖추 수 있다면 보다 순조로운 이행기(smooth transition)를 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연계하여, 다섯 번째 주요 결과로서 경영이양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싶다. 경영주 및 승계자 연령별 경영이양

단계를 분석했을 때, 경영주와 승계자 연령에 무관하게 '막연한 구상 단계'에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승계자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영이양 진행 단계에 있다는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경영이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시기에 맞춰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경영이양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영주들은 생존시 단계적으로 경영권과 소유권을 이양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체계적인 경영이양 계획 없이 이러한 희망사항을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경영주와 승계자 사이에 경영 부담, 수익 분배, 근로 조건, 장래 경영승계 등에 관해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가족경영협약이 유효한 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강경하, & 이영석, 2008). 그러나 경영승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든, 혹은 단기에 이루어지든 간에, 어떤 승계자이든 경영주의 은퇴에 직면하여서는 책임을 모두 승계하기 위해 마지막 노력(last spurt)을 기울여야 하는 단계에 직면하게 된다(Uchiyama, Loble, Errington, & Yanagimura, 2008). 이 시기에 맞추어 교육 지원, 상담 제공 등 원활한 경영승계를 위한 지원을 집중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여섯째, 농지 세분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승계자가 있는 농가의 경우에도 영농승계자에게 일부 상속하고 나머지는 다른 자녀에게 나누어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과반수였다. 현실적으로 농가 경영주 입장에서 농지가 가지는 자산가치로 인해 이를 승계자에게만 상속할 때에 발생하게 될 자녀 간의 재산다툼이나 분쟁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법에서도 균분상속제를 정하고 있는 데에다, 농지상속과 관련한 세제 혜택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대로는 농지의 세분화를 막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비농업인 자녀가 상속받은 농지가 적절한 보상기제 등을 통해 승계자에게 이전되도록 하고,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영농상속을 촉진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응답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승계자가 없는 농가의 경우 역시, 자녀들에게 분배 상속한다는 응답이 34.7%였으며, 이는 농지 규모가 1ha 미만인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더욱 우려가 크다. 전체 농가 중 승계자를 확보한 농가 비율이 10%에 못 미치는 현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농지의 대부분이 비농업인 자녀에게 상속되는 상황이 예상된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농지를 농업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선매권'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가 시급하다.

일곱째, 제3자 경영이양과 관련한 시사점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제3자 경영이양은 생소한 형태이나 승계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제3자 경영이양 의사를 파악해 보았다. 전반적으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소유면적이 클수록, 연간판매금액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사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2008년부터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한 경험이 있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승계자를 확보하지 못한 대규모 농가와 신규 취농자를 매칭하여 유무형 자산을 이양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왔으나,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경영승계를 5년이라는 사업 기간 동안 압축하여 실현해야 하는 시간 제약, 경영자산의 평가액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적은 높지 못하다는 평가다(아나기무라 슌스케, 2018). 우리나라의 경우도 영농 규모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규모만큼이나 커지는 리스크를 안고 농장을 승계할 인력을 찾기가 어려워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고 농장이 세분화되어 매각되도록 두는 것은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 경영이양은 유무형 자산을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이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호 이해관계의 충돌을 비롯한 현실적인 난관들이 예상된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적용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농산업 분야에서 경영이양 주체가 지니는 중요성에 비해 합당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의거, 승계자 확보에 대한 영향요인과 경영이양 관련 여러 과제들을 짚어 보았으나 설문조사 결과에 의존해 각각의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농가 고령화 및 승계자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른 농가의 대응 전략은 미래 농업 구조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명되어야 하겠다.

### 참 고 문 헌

1. 강경하. (2008). *승계농업인의 영농정착 제약요인과 지원 방안연구*. 수원: 농촌진흥청.
2. 강경하, & 이영석. (2008). *농가경영개선을 위한 가족경영 협약 지원방안 연구*. 수원: 농촌진흥청.
3. 강혜정. (2008). 영농승계자 보유 농가의 특징과 시사점. *농업경영 정책연구*, 35(4), 829-848.
4. 마상진, 정은미, & 김경인. (2017).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 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송재일. (2011). 농지 상속에 관한 법적 연구: 조합원 지위의 승계와 관련하여. *한국협동조합연구*, 29(3), 163-206.
6. 아나기무라 슌스케. (2018). *일본의 농업경영 계승 문제와 대책의 과제: 제3자 계승에 대해*. 국립농업과학원 세미나

(2018.3.20.) 자료.

7. 윤순덕, 김경미, & 조영숙. (2008). 고령농업인의 은퇴와 경영이양 의사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18(2), 179-206.
8. 이성호, & 김정호. (1995). *농가의 상속과 경영승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 채광석, & 박석두. (2012). *농지상속 실태와 정책 과제*.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 황정임, 최윤지, & 윤민혜. (2014). 외국의 농가 경영이양 지원 제도 고찰. *농촌지도와 개발*, 21(4), 939-965.
11. Calus, M., Huylenbroeck, G., & Lierde, D.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farm succession and farm assets on Belgian farms. *Sociologia Ruralis*, 48, 38-56.
12. Carroll, E., & Salamon, S. (1988). Share and share alike: Inheritance patterns in two Illinois farm communities. *Journal of Family History*, 13, 219-232.
13. Coughenour, C., & Kowalski, G. (1977). Status and role of fathers and sons on partnership farms. *Rural Sociology*, 42, 180-205.
14. Friedberger, M. (1983). The farm family and the inheritance process: Evidence from the Corn Belt, 1870-1950. *Agricultural History*, 57, 1-13.
15. Glauben, T., Petrick, M., Tietje, H., & Weiss, C. (2009). Probability and timing of succession or closure in family farms: A switching regression analysis of farm households in Germany. *Applied Economics*, 41, 45-54.
16. Glauben, T., Tietje, H., & Weiss, C. (2004). Intergenerational succession in farm households: Evidence from Upper Austria.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2, 443-461.
17. Inwood, S., Clark, J., & Bean, M. (2013). The differing values of multigeneration and first-generation farmers: Their influence on the structure of agriculture at the rural-urban interface. *Rural Sociology*, 78, 346-370.
18. Kerbler, B. (2012). Factors affecting farm succession: The case of Slovenia. *Agricultural Economics*, 58(6), 285-298.
19. Kimhi, A., & Nachlieli, N. (2001). Intergenerational succession on Israeli family farms.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52(2), 42-58.
20. Laband, D., & Lentz, B. (1983). Occupational inheritance in agriculture.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5, 311-314.
21. Loblely, M., Baker, J. R., & Whitehead, I. (2010). Farm succession and retirement: Some international comparisons. *Journal of Agriculture, Food Systems, and Community*

*Development*, 1, 49-64.

22. Mishra, A. K., & El-Osta, H. S. (2008). Effect of agricultural policy on succession decisions of farm households.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6, 285-307.
23. Mishra, A. K., El-Osta, H. S., & Shaik, S. (2010). Succession decisions in U.S. family farm businesses. *Journal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35(1), 133-152.
24. Pesquin, C., Kimhi, A., & Kislev, Y. (1999). Old age security and inter-generational transfer of family farms. *European Review of Agricultural Economic*, 26(1), 19-37.
25. Potter, C., & Lobley, M. (1996). Unbroken threads? Succession and its effects on family farms in Britain. *Sociologia Ruralis*, 36, 268-308.
26. Stiglbauer, A., & Weiss, C. (2000). Family and non-family succession in the upper Austria farm sector. *Cahiers D' economie et Sociologie Rurales*, 54, 5-26.
27. Taylor, J. E., Norris, J. E., & Howard, W. H. (1998). Succession patterns of farmer and successor in Canadian farm families. *Rural Sociology*, 63(4), 553-573.
28. Uchiyama, T., Lobley, M., Errington, A., & Yanagimura, S. (2008). Dimensions of intergenerational farm business transfers in Canada, England, the USA and Japan. *Japanese Journal of Rural Economics*, 10, 33-48.

Received 13 May 2018; Revised 30 May 2018; Accepted 12 June 2018



Jeong-Im Hwang is a Researcher of Rural Environment & Resources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are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residents and community development.  
Address: (55365)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166, Nong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South Korea.  
E-mail) jihwang@korea.kr  
Phone) 82-63-238-2648



Yoon-Ji Choi is a Researcher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are on rural aging and rural in-migration.  
Address: (54875)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300, Nongsaengmyeong-ro, Wansan-gu, Jeonju-si, Jeollabuk-do, South Korea  
E-mail) veritas96@korea.kr  
Phone) 82-63-238-0479



Dr. Jung-Shin Choi is a Researcher of Rural Environment & Resources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are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women and families.  
Address: (55365)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166, Nong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South Korea  
E-mail) spirit9515@korea.kr  
Phone) 82-63-238-2647